

무덤덤한 무덤은 덤

등장인물

주인

페도라

손님

정장

1장

카운터 안쪽에서 주인, 바르게 선 채로 컵을 닦고 있는 중이다.

무대 상수 테이블에 앉은 한 인물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페도라를
푹, 눌러쓴 모양새다.

무대는 조용하다.

둘 사이에 한마디 대화도 오고가지 않는다.

페도라, 이따금 컵을 들고 커피를 훌쩍일 뿐, 코트 속에서 책을 꺼내어 읽거나
핸드폰을 한다는 등 어떠한 행위 없이 오직 제 앞에 놓인 커피잔만을 응
시한다.

페도라 그대여, 그대는 오랫동안 나의 말을 듣지 않았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지 컵만 닦았을 뿐이야. 더 이상 컵을 닦고 닦다가는 너무 환해 눈이
멀어버릴지도 모르네. 아니, 그대는 이미 멀었는지도 모를 일이네. 그
대여,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왜 그대는 나의 말에 응답하질 않는
것인지.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페도라 그래. 이번에도 그런 식이로군. 익숙한 반응이야. 정녕, 무시 또한 반
응이라고 봐도 좋을지…… 음, 모르겠지만 말일세. (사이.) 그나저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말이야. (뒤쪽의 무덤을 돌아보며) 저거,
웬 무덤인가? 카페에 무덤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지 않느냐 말
이야. 아니네. 묘지에 웬 카페인가,라고 물어야 했나. 모르겠네. 요즘
카페들이 커피팔이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묘지카페, 아
니, 카페묘지라니, 이 너무 값어도 너무 멀리 간 건 아닌가 말일세.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페도라 (모자를 바로 고쳐 쓰면서) 나도 이젠, 지쳤어. 내내 홀짝이던 이 커피도 바닥이 났네, 그래. 그대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 내게 커피 한 잔만 더 내려 줄 수 있느냐?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래. 그래. 알겠네. 알겠어. 근데 그거 아는가? 때론 무시하는 그대도 썩 좋은 말 상대가 되어 줄 때가 있다네.

페도라, 주인이 서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직접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다.

페도라 예전부터 난 이 원두가 곱게 갈리는 소음이 참 듣기 좋았네.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이 입자가 너무 곱게 갈리게 되면 커피 맛이 써지고, 곱게 갈려도 맹탕이 되어 버리지. (사이.) 이렇게, 텀핑은 평평하고 적당히 무게를 실어 누르면 되고…… 하 참, 내 그대 대신 커피를 하도 내리느라 나도 전문가가 돼 버렸구만, 그래. 그대여. 오늘은 이 내 말에 반응해 주는 게 어떠한가? 말이 싫다면 눈짓이라도 좋으네. 눈짓도 부담스럽다면, 작은 한숨은 또 어떻고? 아니면…… 이젠 나도 모르겠어.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페도라 (주인을 툭툭 치며) 어이, 어어이,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 말을 거는 것일세. 그대, 내게도 컵 하나만 주겠나? 쓰던 컵이 영 더러워져서 말이야. 응? (사이.) 그래. 내가 가져가겠다. 손수하면 될 일이지. 그대에게 내 무슨 기대를 더 할까.

페도라, 주인이 닦아 놓은 컵 더미에서 컵을 하나 꺼낸다.

그 순간, 더미가 불안정하더니 이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다.

와장창, 깨지는 컵과 그릇 들.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페도라 (당황해하며) 아아…… 이거 정말, 이러려고 한 건 맹세코 아닐세. 아
아. 온전히 내 잘못일세. 진심으로 미안하네. (컵을 주워 담으려다 이
내 그냥 두며) 나, 그대에게 서운한 건 없네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았
으면 하네. 아아. 아무리 그대가 나의 말을 무시로 일관했다고 해도,
그대에게 나 서운한 일일랑 한 치만큼도 없었네. 정말이라네. 믿어주
게.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페도라 ……믿어주는 거지?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닦은 컵을 높이 올려다 조명 빛에 비
추어 보인다. 남은 얼룩이 있는지 흰 행주로 다시금 컵 내부를 닦기
시작한다. 닦인 컵을 재차 올려다 조명 빛에 비추어 보이다가 이내
땅에 짹, 내던진다.)

주인과 페도라의 발아래, 깨어져 있던 컵 무더기가 한층 흐트러지며 사방으
로 유리 파편이 튈다.

암전.

2장

깨끗하게 정리된 카페.

밝아지며,

페도라 그대여. 그대는 오랫동안 나의 눈을 보지 않았지. (사이.) 여긴 손님
도 아니 오는데 닭을 컵이 왜 그리도 많단 말인가?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닭는다.)

잠시 후, 딸랑— 벨 소리 들려오며 무덤의 뒤편에서부터 등장하는 손님.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닭으려다 다시금 내려놓으며) 어서 오세요.

손님 (쭈뼛거리면서) 아... 안녕하세요.

손님, 무대를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카운터 앞에 선 채 주인과 마주보게 된다.

주인 주문, 하시겠어요?

손님 네? 아, 주문이요. 음... 어...

페도라 (모자를 푹 눌러쓰면서) 자네, 방금 저 무덤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나 원 참! 이 카페에 손님이 온 것도 처음 보는데, 그 손님이 무덤에
서 나오질 않나. 어이, 어이, 여긴 당최 뭇하는 곳인지? 것보다, 왜 여

기는 문이 없나. 눈 씻고 둘러봐도 나가거나 들어오는 문 하나가 보이지를 않아. 이제 난 좀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페도라, 손님을 향해 말을 걸지만, 반응하지 않는 손님.

주인, 페도라 쪽을 흘깃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손님을 응대한다.

주인 (메뉴판을 밀어 건네며) 오늘은 원두가 총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원두를 고르시든지 씹기는 씹습니다. 당신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손님 (다소간 당황스러워하며) 저기, 그럼, 제가 지금 죽기라도 했던 말인가요?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여긴 그럼, 천국이고요? 그렇다기엔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의 단골 카페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걸요?

주인 과테말라나 케냐. 이 두 원두가 오늘은 좋습니다,만. 씹기는 씹습니다. 커피는 그뿐입니다. 쓴맛. 그렇다고는 해도 단지 커피를 쓴맛으로만 즐기시는 분은 없는 것이죠. 한잔을 다 비우고 나면 그저 분위기로만 남을 맛. 순간적인 감각으로 혀끝에 머무르게 될 뿐이죠.

페도라 (모자를 바르게 고쳐 쓰면서) 어이, 어어이, 당신들, 지금 내가 말을 하잖는가. 왜 이 나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의자에서 일어나 손님을 향해 가며) 이보게, 저 무덤은 대체 무언가? 어찌하여 그댄 저 속에서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대, 저 무덤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것인가? 그러하면... 유령인가? (사이.) 그래. 그대도 이 내 말이 들리지를 않는가 보군!

손님 네, 그럼 아무거나. 아무거나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감사해요. 아, 계산은 어떻게 하죠? (양쪽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제가 지금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데요. ...네, 경황이 좀 없었거든요. (사이.) 여기 오는

동안에요.

주인 앓아 계시겠어요? (작게 읊조리는 투로) 아무거나…… 곧, 가져다드리
 겠습니다.

손님 아 냅… 참! 시럽, 많이 넣어 주시구요.

주인 시럽… 네, 앓아 계셔요.

손님, 카운터 바로 옆자리에 앉는다.

주인,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다.

머신의 그라인더가 작동하고 원두 갈리는 소리 상쾌하게 들린다.

줄줄줄, 커피 흐르는 소리도 들린다.

페도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커피를 훑어보며 손님, 주인, 손님, 주인, 번갈아
가며 훑어본다.

그러다가 다시, 제 모자를 푹 눌러쓰면서

페도라 그대에겐 달달해져도 커피는 늘 커피인가 보오.

암전.

3장

밝아지며,

카페의 모든 가구, 비품 들은 치워지고 무대 한가운데 무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인물, 무대 안으로 걸어 들어와 무덤 앞에 선다.

잠시간 멀뚱하게 서 있다가 문득 한 손에 들린 보자기를 풀기 시작한다.

수육, 산적, 배, 그리고 소주를 차례대로 상석 위에 보기 좋게끔 꺼내놓는다.

술잔에 소주를 조금 따라 두고는 이내 가지런한 공수 자세로

절을 한 번 올리고

절을 두 번 올리고

일어나 고개를 꾸벅, 하며 절을 마친다.

몸을 수그린 채 무릎에 붙은 잔디를 툭툭, 털어낸다.

그러고는 다시 퇴장.

긴 암전.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 들리고,

이내 다시 수그러들고,

얼마 후 동이 뜬다.

다시금 무대 조금 밝아지며,

주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말, 아시죠? 드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온전히 손님만을 위한 것이니 흡족하게 바라보신 후, 나름의 생각 정리

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님

(커피를 호로록, 훌쩍이면서) 이것 참, 요 모닝커피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로군요. 저 사람은 매번 나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하여간 모르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입이 어디 있다구... 참,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대학교까지 나온 양반이 어찌 그걸 모르나 몰라.

밤의 날짐승 소리, 다채롭게 무대 위로 울려퍼지고,

손님은 호로록, 또 한차례 제 커피를 훌쩍거린다.

그때, 저 멀리서 수풀을 헤치는 듯한 소리, 바스락바스락 들린다.

페도라, 무대 위 무덤을 향해 걸어온다.

제 모자를 벗어두고 영전에 맞춘 그의 예를 갖추며

페도라

오래 식은 커피란 원체 맛이 없다네. 소리도 없이 서서히 산패되다가 이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시고도, 땀어. 우리네 인생처럼 말일세. (사이.) 음, 그러니까 설익은 감을 한입 베어 물 때처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커피에서 땀은맛이라면 도저히 나 용납 안 되네. 그건 말이야, 도저히... 커피라고는 말할 수 없어.

페도라, 손님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빼앗아 들고는 자신이 새로 내려 온 따뜻한 커피를 다시금 쥐여 준다.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커피를 뒤로 하고 다시금 무대 밖으로 퇴장하는 페도라.

손님, 주인, 둘도 함께 그 뒤를 따라 퇴장한다.

암전.

밝아지며,

이내 페도라, 손님, 주인, 셋이 각자 몫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들고서 다시금 등장한다.

무대, 다시금 카페.

손님

(커피를 홀짝이면서) 이곳에 오기 전엔 저도 일을 했었지요. 저는요, 좀 비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체 사람 자체가 소심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눈을 못 마주치는 성정인지라... 말하자면, 그 사이에 놓을 담벼락 같은 게 필요했어요. 담벼락. 음, 또, 마침 관찰이랄까 아니 관음이랄까 그런 걸 좋아라 했기 때문이에요.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달까요. 카메라 뒤에 숨으려 했던 거지요. 담벼락 뒤에 숨듯이요. 그러면 몰래 눈을 마주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치만 전, 그저 감독들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만년 지망생이었습니다. 감독 자리 한번 앉아 본 적 없었고 다만 매일같이 집 앞의 단골 카페에 출근하듯 들러 두세 편쯤의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이거... 근데 왜인지 잘 식지를 앓는 듯해요. 난 뜨거운 거 잘 못 마시는데.

그때 정장 차림의 인물, 무덤 뒤에서 등장한다.

한 손에는 새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손님 맞아요! 저 분이 바로 저를 늘상 챙겨 주시던 감독님이셔요. 감독님이셨는데. 감독님. 감독... 정감독님이 여길 왜?

주인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정장 과연 커피집이로군요. (사이.)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혹여나 여기마저 촬영용 세트장 같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요. 아 참. '오늘의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아이스로요. 고마워요.

페도라 나 참, 이거 갈수록 난장판이 되어가는군, 그래.

4장

무대,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조명은 푸르고 어슴푸레하다.

주인, 객석을 등지고 무덤 앞에 홀로 고개 숙인 채 서 있다.

무대 한쪽에서 깨뜨린 컵더미가 반짝거린다.

페도라 (무덤 뒤에 숨어 있는 듯 목소리만) 그래, 이젠 그대도, 저 무덤도, 더 이상 내 말 상대가 아니게 되었네. (사이.) 그나저나, 저 깨어진 컵들은 언제 치울 생각인가. 카페에 손님도 없는 참에 얼른 치우고 말아 버릴 것을. 허나 그래도... 어찌 된 일인지, 난 아직도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래.

주인 (혼잣말을 하듯 고개 들어 하늘을 치어다보면서) 달빛은... 너무 많은 것들을 비춰 보이는군요. (문득 앞치마를 풀면서) 미처 생을 잊지 못

(목소리만) 그게 자네 문이라네, 그래. 어서 들어오시게. 아니면, 냉큼

나가 버리게.

5장

밝아지며,

무대, 다시 카페.

집기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

주인, 카운터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

손님, 카운터 바로 옆의 자리에서 제 커피를 기다리고 있다.

페도라, 주인과 손님, 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앉아 모자를 꼭 눌러쓴 채 침

묵을 지키고 있다.

정장, 이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무덤을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웃다가 다시금

진지한 표정을 짓다가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써 본다.

정장 (불현듯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넌 여기서도 농땡이나 피우고 있는 건가?

손님 (큰 소리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니요! (사이.) 저는요, 단 한번도 감독님 뒤를 따라다니는 동안 요령이라고는 피워 본 적이 없어요. 감독님은 늘 감독님만의 삶을 믿고 계셨죠. 그 눈은 여기까지 와서도 마찬가지로군요.

주인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페도라 (주인 옆에 서서 같이, 말없이 새 컵을 들고 닦는다.)

정장

(다시, 무덤 주변을 빙빙 돌면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 네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인물 같아 보였어. 쓸쓸함. 그 자체의 의인화와 같았다랄까. 나는 너를 내 영화 속 배우로 쓰고 싶었어. 애초에 내 후임으로 들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언제 부터인가 네가 스스로 너의 그 비굴한 인생을 안쓰러워하기 시작하는 듯 보였을 때, 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영화감독이라는 꿈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더구나. 그거야말로 참사와 다름없는 사건이었던 거야. 그렇게 어느 날 네 주어진 삶을 비관하고는 세트장 구석에서 네가 아주 천천히, 차가운 커피처럼 식어 가던 때... (주인과 페도라가 있는 카운터 쪽을 바라보며) 저기, 저, 마지막으로 커피 딱 한 잔만 더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사이.) 아니면,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내려 마시는 것도 좋을 듯하구.....

페도라,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는 정장을 위해 자리를 비워 준다.

다시금 카운터로부터 멀찍한 자리에 앉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우수에 젖어 들기 시작하는 페도라.

암전.

6장

밝아지며,

무덤, 번쩍! 일어난다.

무덤이 위로 들리자,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의 맨다리가 여러 줄기 드러난다.

무덤은 무대 하수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무덤은 무대 상수 쪽으로도 가려고 한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무덤은 결국,

콰직! 반으로 쪼개어진다,

마치 부화하는 알처럼.

그리고 황급히 잠전.

7장

무대, 무덤이 치워진 카페 안.

주인, 혼자 선 채 흰 천으로 홀 테이블을 닦고 있다.

주인

(테이블 위에 놓인 페도라의 페도라를 들어 보이며) 결국 놓고 떠나셨군요. (페도라를 든 채 테이블을 닦으며) 이 모자, 당신에겐 바로 무덤이 아닌가 싶었어요. 무덤 속에 폭. 그리고 또 폭. 생이란 게 지난할 적마다 이 모자가 당신에게는 눈길을 피하는 장소였던가요.

주인, 다시금 페도라를 제자리에 가만히 내려놓는다.

그리곤 짧은 묵념.

주인

커피를 좀 내려야겠어요. 커피란 거 말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수한 어떤 조합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단 말이죠.

주인, 커피를 내린다.

그라인더 소리, 머신의 소리, 하염없이 이어지고

커피를 흰 커피잔에다 따른다.

그러고는 주인, 객석으로 향한다.

주인

자, 사양 말고 드세요.

관객, 커피를 들이켜려는 순간,

암전.

막.